

【논 문】

6세기 말 7세기 초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 『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

박 노 석**

┃ 차 례 ┃

1. 서론
2. 『수서』 「말갈전」 재검토
3.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4. 결론

국문초록

『수서』 「말갈전」에는 말갈이 속말부, 백산부 등 7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 『복사』나 『구당서』, 『신당서』 등에도 있다. 말갈의 거주 지역을 기존에는 백산부의 백산이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말갈은 고구려의 영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구려와 속말부의 경계선인 도태산(태백산)과 백산부의 거주지인 백산은 대독정자산이다. 그리고 속말부는 지금의 농안 서북쪽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5부의 위치도 재검토 하여야 한다.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갈인들은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숙신계 주민이다. 고구려와 숙신족(말갈)은 태조왕대부터 접촉을 하였으며, 서천왕대에는 이들 중 일부를 복속시켰다. 6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고구려에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025)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시간강사

는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말갈인들 중 일부를 복속시키고 군사의 일부로 활용하였다.

주제어 : 말갈, 말갈 7부, 숙신, 속말부, 백산말갈, 도태산, 수서

1. 서론

말갈은 러시아의 연해주 북부와 중국의 흑룡강 유역에 거주하였던 민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말갈을 남북국 시대 이전에는 숙신, 물길, 말갈로 발해가 망한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여진족으로, 지금은 만주족으로 부르고 있다.

『삼국사기』에 숙신은 태조왕대, 서천왕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으며, 물길은 문자명왕 13년(504)에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¹⁾고 한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말갈에 대해서는 고구려 동명왕 즉위년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²⁾

이에 비해서 중국 측 기록에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 등이 정사에 입전되어 있으며, 말갈이 가장 먼저 열전에 기록된 것은 『수서』이다. 『수서』 「말갈전」에 말갈은 고구려와 인접한 속말말갈을 비롯하여, 백돌부, 백산부, 안거골부, 호실부, 흑수부, 불열부 등 7개³⁾의 부로 나뉘어 있었다.

-
- 1) 『삼국사기』 권 제19, 「고구려본기」 7, 문자명왕 13년(이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로 약칭).
 - 2) 『삼국사기』에는 한반도 남부에도 말갈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예맥계 민족을 말갈로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남(2000, 『『삼국사기』 초기 기록 말갈에 대한 재검토』 『전북사학』 23) 참고.
 - 3) 말갈 7부에 대한 기록은 『수서』 권81 열전 제46, 동이/말갈전(이하 『수서』 「말갈전」으로 약칭)과 『북사』 권 94, 열전 제82 물길전(이하 『북사』 「물길전」으로 약칭)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도 비슷하다. 『북사』를 편찬한 이연수(李延壽)는 『진서(晉書)』와 『수서(隋書)』 등의 편수에 참여하며 남조와 북조 국가들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북사』 「물길전」에 기록된 내용은 『수서』 「말갈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한 이연수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편찬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하며, 이연수는 물길과 말갈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7개 부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대체로 백산부의 백산을 지금의 백두산으로 설정하고 백두산 주변 지역에 백산부가 거주한 것으로, 속말부는 과거 부여가 있었던 지금의 길림시 지역인 부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대적 위치를 정하고 있다.⁴⁾

그런데 두만강 하류나 부여 지역은 고구려와 복옥저, 부여를 형성한 예맥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구려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이들을 점령하여, 멸망할 때까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북쪽에 있던 속신(말갈)의 일부를 점령하여 복속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대수·당 전쟁 등에 많은 수의 말갈인을 동원하였다. 그러므로 말갈 7부가 지금의 길림시 지역이나 백두산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곳이 과거 예맥족 거주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역 내부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먼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고구려는 백두산과 그 북쪽지역을 말갈에게 빼앗기고 영토가 축소된 것인가, 이 지역의 예맥인들을 말갈로 불렀던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의 영역 내에 말갈인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이 있다. 또한 고구려의 영역 내에 말갈인이 거주하였다면 이들 말갈인들은 처음부터 이곳에 거주하다가 고구려에 복속된 것인지, 아니면 본래는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나 말갈인들에게 빼앗긴 것인지, 또는 고구려가 말갈인들을 점령하고 이들 중 일부를 이 지역으로 사민한 것인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말갈의 거주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 6~7세기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절에서는 『수서』 「말갈전」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이들 말갈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4) 이에 대해서는 김현숙(1993, 「고구려의 말갈지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 김영천(2008, 「말갈의 성장과 고구려의 말갈 복속」 『고구려발해연구』 32), 김락기(2010, 「6~7세기 말갈 제부의 내부구성과 거주지」 『고구려발해학회』 36) 등 논문 참고.

2. 『수서』 「말갈전」 재검토

중국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말갈은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으로도 불렸으며 지금은 만주족으로 불리고 있는 민족이다. 말갈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열전에 입전된 것은 『수서』 「말갈전」이 처음이다.

『수서』는 당 태종 10년(636)에 장손무기(長孫無忌)와 위징(魏徵), 이연수 등이 태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전체 85권으로 되어 있다. 『수서』에 기록된 내용은 수(581~618)의 역사이지만 수의 이전부터 당 태종대까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열전에 있는 주변 민족에 대한 기록은 이전부터 집적된 내용을 기록하고, 수 때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즉, 『수서』에 있는 외국 열전의 내용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내용에 남북조 시대와 이를 계승한 수가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이 중 「말갈전」은 속말말갈 출신으로서 개황 연간(581~600)에 수에 투항하고, 당대까지 활동한 탁지계(度地稽⁵⁾의 정보와, 수에 조공을 한 다른 말갈인들이 전한 정보를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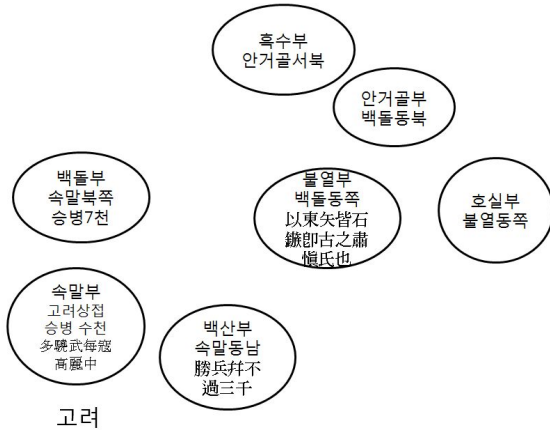
그러므로 『수서』에 기록된 정보는 그 시기에 획득한 정보가 바로 사서에 기록된 것으로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수서』 「말갈전」에 기록된 말갈 7부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말갈은 고려의 북쪽에 있다. 읍락에는 모두 추장이 있으나, 하나로 합해 지지는 않았고, 7종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속말부(粟末部)로 고려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승병(勝兵)은 수천이고 모두 용감하여 매번 고려를 노략질한다. 두 번째는 백돌부(伯咄部)로 속말의 북쪽에 있다. 승병은 7천이다. 세 번째는 안거골부(安車骨部)로 백돌의 동북쪽에 있다. 네 번째는 불열부(拂涅部)로 백돌의 동쪽에 있다. 다섯 번째는 호실부(號室部)로 불열의 동쪽

5) 『당서』에는 돌지계(突地稽)로 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름을 『수서』에 나오는 탁지계로 통일한다.

에 있다. 여섯 번째는 흑수부(黑水部)로 안거골 서북쪽에 있다. 일곱 번째는 백산부(白山部)로 속말의 동남쪽에 있다. 승병은 모두 3천을 넘지 않으나, 흑수부가 더욱 강건하다. 불열부 동쪽에서는 화살에 모두 석촉을 사용하는데 옛 숙신씨(肅愼氏)이다.⁶⁾

이와 같이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으며, 7개의 부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은 각기 추장의 지휘를 받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말갈 7부의 상대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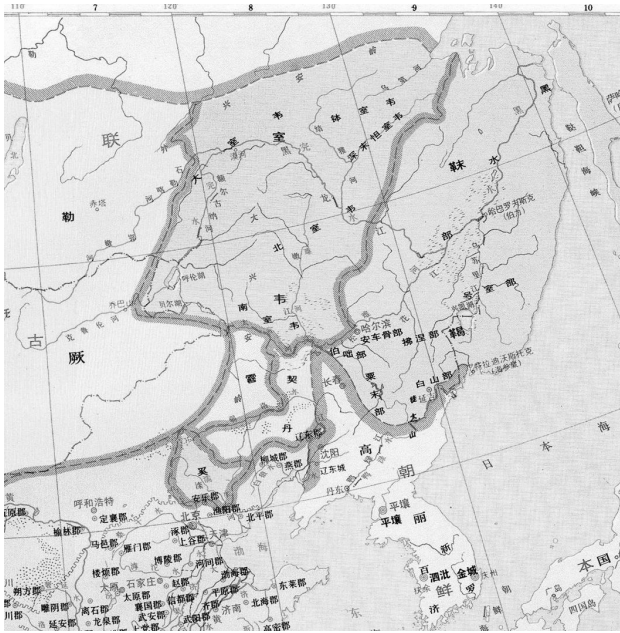
위의 그림과 같이 말갈 7부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백산부나 불열부 호실부 등도 기록은 없으나 고구려와 상접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당서』 「말갈전」에 따르면 말갈은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로는 돌궐, 남으로는 고려, 북으로는 실위와 접하고, 수십부로 나뉘어 있었고, 혹은 고려에 부용하며, 혹은 돌궐에 신속되었다⁷⁾고 하였다.

6) 靺鞨 在高麗之北 邑落俱有酋長 不相總一 凡有七種 其一號粟末部 與高麗相接 勝兵數千 多驍武 每寇高麗中 其二曰伯咄部 在粟末之北 勝兵七千 其三曰安車骨部 在伯咄東北 其四曰拂涅部 在伯咄東 其五曰號室部 在拂涅東 其六曰黑水部 在安車骨西北 其七曰白山部 在粟末東南 勝兵並不過三千 而黑水部尤爲勁健 自拂涅以東 矢皆石鏃 卽古之肅愼氏也(『수서』 「말갈전」).

그리고 『신당서』 「흑수말갈전」에는 속말부가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태백산(太白山) 혹은 도태산(徒太山)에서 고구려와 접하고 속말수(粟末水)에 의지하며 거주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다른 부들의 명칭을 기록하고, 속말의 동쪽이 백산부이고, 부사이의 거리는 먼 것은 3~4백리, 가까운 것은 200리라고⁸⁾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중국학계와 일부 국내 학계에서는 백산부의 백산을 백두산에, 속말부의 속말수를 복류 송화강에 비정하고, 흑수부의 흑수를 흑룡강으로 설정한 뒤에 다른 부들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보고 있는 말갈 7부의 위치는 아래의 지도⁹⁾와 같다.



〈그림 2〉 담기량의 수대 지도

7) 『구당서』 권 199하, 열전 제149하, 복적 말갈(이하 『구당서』 「말갈전」으로 약칭).
 8) 『신당서』 권 219, 열전 제144, 복적 흑수말갈(이하 『신당서』 「흑수말갈전」으로 약칭).
 9)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앞의 지도와 같이 중국학계에서는 속말부를 북류 송화강 유역, 백산부는 백두산 부근, 백돌부를 눈강과 북류 송화강의 합류지점, 안거골부는 동류 송화강 부근, 흑수부는 흑룡강연안, 불열부는 모란강 유역, 호실부는 우수리강 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속말부가 있었다는 북류 송화강이나, 백산부가 있었다는 백두산 지역은 모두 영류왕(營留王; 建武, 재위 618~642)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즉 고구려에서는 16년 동안 쌓아오던 당시 부여성에서 동남쪽으로 발해만까지 이어지는 천리장성을 631년(영류왕 14)에 완결하였다.¹⁰⁾

그러므로 영류왕 당시 부여 일대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이 지역에 속말부 혹은 백돌부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고구려의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아울러서 백산부가 있었다고 하는 백두산 지역은 동명왕대에 이미 고구려가 점령한 곳으로¹¹⁾ 이후 한 번도 상실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중국학계나 국내 일부 기존 학설과 같이 속말부나 백산부의 거주 지역을 설정한다면 고구려가 이 지역을 상실하였거나, 고구려의 영역 내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시 되는 기록이 『신당서』 「흑수말갈전」에 속말말갈과 고구려가 도태산(태백산)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다. 이 도태산에 대해서 기존에는 백두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속말부의 상대적 위치를 찾았다. 그러나 이 도태산은 지금의 장광재령 중심에 위치하여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경계를 이루는 대독정자산(大禿頂子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10) 營留王 十四年 春二月 王動衆築長城 東北自扶餘城 東南至海千有餘里 凡一十六年畢功(『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1)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왕 6년. 이때 태백산(백두산) 동남쪽의 행인국을 점령하였다. 그러므로 이때 백두산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왕 10년에는 지금의 훈춘 지역에 있었던 북옥저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미경(2007,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노석(2003, 『고구려 초기의 영토변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고.

한편 속말말갈이 부여성의 서북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수의 북변풍속기(北蕃風俗記)에 이르기를 처음 개황(開皇)중에 속말말갈과 고구려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켈계부(厥稽部)의 거장(渠長) 돌지계(突地稽)가 마침내 홀사래부(忽賜來部), 굴돌시부(窟突始部), 열계몽부(悅稽蒙部), 월우부(越羽部), 보호뢰부(步護賴部), 파해부(破奚部), 보보괄리부(步步括利部) 등 무릇 8부의 승병 수천인을 거느리고 부여성의 서북에서부터 부락을 거느리고 관내(關內)로 향하여 귀부해 오자 [돌지계를] 유성(柳城)에 거주하게 하였다.¹³⁾

이 기록과 같이 속말말갈의 탁지계(돌지계)는 개황(581~600)년간에 고구려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부여성의 서북에서 휘하의 세력을 거느리고 수에 귀부하였다. 그러므로 속말부의 탁지계는 당시 부여성이 있던 지금의 중국 길림성 농안(農安)¹⁴⁾의 서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속말부에는 켈계부 등 8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태평환우기』에는 탁지계를 따라간 8개의 부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탁지계를 따라간 부이고, 따라가지 않은 부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복사』 「물길전」에 속말수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데 말갈이라고도 한다. (중략) 화룡(和龍)에서 북으로 200여리를 가면 선옥산(善玉山)이 있고, 산에서 북으로 13일을 가면 기려산(祁黎山)에 이르고, 또 북으로 7일을 가면 낙환수(洛環水)에 이르는데, 물의 폭이 1리 정도 된다. 이곳에서 다시 북으로 15일을 가면 태악노수(太岳魯水)에 이르고, 다시 동북쪽으로 18일을 가면 그 나라에 이른다. 나라에는 큰물이 있는데 폭이 3리 정도이고, 이름을 속말수라 한다. (중략) 나라 남쪽에 종태산(從太山)이 있다.¹⁵⁾

12) 김락기, 2009, 「5~6세기 물길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 53.

13) 隋北蕃風俗記云 初開皇中 粟末靺鞨與高麗戰不勝 有厥稽部渠長突地稽者 卒忽賜來部 窟突始部 悅稽蒙部 越羽部 步護賴部 破奚部 步步括利部 凡八部勝兵數千人 自扶餘城西北 齊部落向關內附 處之柳城(『태평환우기』 권 71, 하북도 20)

14) 노태돈, 1989,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국사편찬위원회.

이와 같이 물길(말갈)은 지금의 조양인 당시의 화룡에서 북으로 200리를 가고, 이곳에서 다시 북으로 35일을 가서 태악노수에 이른 뒤에 다시 동북쪽으로 18일을 가야한다. 이곳에 속말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속말수의 폭이 3리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물길의 남쪽에 종태산(從太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태산(徒太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사』에서 언급한 물길은 속말수를 중심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남쪽에 도태산이 있다고 하였다. 이 종태산(도태산)을 경계로 고구려와 접경하였을 것이다. 이 『북사』의 편찬자가 이연수이며 이연수는 『수서』의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그리고 『북사』 「물길전」의 내용과 『수서』 「말갈전」의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때의 물길은 속말말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도태산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의 조양에서 북으로 35일을 가고 다시 동북쪽으로 18일을 가야 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때 도태산은 지금의 백두산으로 볼 수 없고, 대독정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속말말갈도 지금의 북류 송화강의 중류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속말부에는 『태평환우기』의 기록과 같이 여러 개의 세력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당서』 「흑수말갈전」에는 불열부의 위치에 대한 다른 기록이 있다.

처음에 흑수부의 서북에 사모부(思慕部)가 있으며, 더욱 북쪽으로 10일을 가면 군리부(郡利部)가 있고, 다시 동북으로 10일을 가면 굴설부(窟說部) 혹은 호굴부(號屈設)가 있고, 다시 동남으로 10일을 가면 막예개부(莫曳皆部)가 있고, 또 불열(拂涅) 우루(虞婁) 월희(越喜), 철리(鐵利) 등의 부가 있다. 그 땅의 남쪽으로 발해에 이른다. (중략) 불열은 또 대불열(大拂涅)이라고도

15) 勿吉國在高句麗北 一曰靺鞨 (중략) 自和龍北二百餘里有善玉山 山北行十三日至靺鞨山 又北行七日至洛環水 水廣里餘 又北行十五日至太岳魯水 又東北行十八日到其國 國有大水 闊三里餘 名速末水 (중략) 國南有從太山者(『북사』 권 94, 물길전)

하는데 개원(開元) 천보(天寶) 간에 들어와서 고래의 눈(鯨睛) 등을 바쳤다.¹⁶⁾

이처럼 불열부는 부여의 북쪽에 있으면서 오히려 흑수부의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다. 『신당서』는 송 인종 가우연간(1056~1063)에 구양수 송기 등이 편찬한 것으로 당이 멸망하고 150여 년 뒤에 편찬된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도 불열부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말갈세력들도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불열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속말말갈은 북류 송화강 유역이 아니라 농안의 서북쪽에서 그 위치를 찾아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른 6부의 위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락기는 말갈의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¹⁷⁾ 김락기는 속말부의 북쪽에 위치하였다는 백돌부는 청대 백도놀이 부여현을 중심으로 남림하 이북의 흑룡강성 쌍성시 부근으로, 백돌부의 동북쪽에 있는 안거골부는 아십하 중·하류에 해당하는 흑룡강성 아성시와 하얼빈시 중심구역, 그리고 호란하가 동류 송화강에 합류하는 하얼빈시 호란구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그리고 백돌부의 동쪽에 있는 불열부는 속말부의 동쪽에 위치한 남림하 중류의 오상 일대와 망우하 부근, 좀 더 넓게 보면 오상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상지시 일대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불열부의 동쪽에 있다고 한 호실부는 장광재령과 과회산 사이의 목단강 중하류와 과회산 동쪽의 임구현 일대로 보았다.

하지만 고구려 말기 부여현은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므로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백돌부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속말부가 이곳의 서북쪽에 있었으

16) 初 黑水西北又有思慕部 益北行十日得郡利部 東北行十日得窟說部 亦號屈設 稍東南行十日得莫曳皆部 又有拂涅 虞婁 越喜 鐵利等部 其地南距渤海 (중략) 拂涅 亦稱大拂涅 開元 天寶間 八來 獻鯨睛(『신당서』 「흑수말갈전」).

17) 김락기, 2010, 「6~7세기 말갈 제부의 내부구성과 거주지」 『고구려말해연구』 36집.

므로 백돌부는 부여현의 북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실부가 가장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당서』나 『구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말갈은 동으로 바다에 이른다고 하였으므로 바닷가까지가 이들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안거골부의 서북쪽에 위치한 흑수부는 동류 송화강과 목단강이 합류하는 의란현에서 흑룡강과 송화강이 합류하는 동강시 일대로 보았다. 백산부는 영안에서 경박호를 거쳐 돈화에 이르는 목단강 상류의 대독정자산 동남쪽 또는 동쪽 지역으로 보았다.

백산부의 위치와 관련하여 『수서』 「말갈전」에는 “그러나 그 나라(말갈)와 수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오직 속말과 백산이 가깝다”고 한 기록이 있다. 만약 백산말갈이 기존의 견해와 같이 백두산 지역에 있었다면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산부도 속말부와 인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수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신당서』 「흑수말갈전」에 의하면 부(部)들 사이의 거리가 먼 곳은 3~4백리, 가까운 곳은 200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말갈 7부가 위치한다면 그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 『신당서』의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거주 지역을 좁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서』 「말갈전」에는 말갈은 7부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중 속말부가 고구려와 인접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해서 기존에는 백산을 백두산으로 보아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북쪽 지역에서 찾았으나, 이곳은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또한 고구려와 속말말갈의 경계선인 도태산(태백산)을 대독정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속말부의 탁지계가 부여성의 서북에서 수에 귀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속말부는 지금의 농안 서북쪽에 있었다. 그리고 백산부의 백산이 태백산 즉 도태산이므로 백산부는 목단강 상류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5부의 상대적 위치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앞서 『수서』 「말갈전」에 나오는 7부는 당시의 도태산 지금의 대독정자산을 경계로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말갈의 종족계통과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수서』 「말갈전」에는 ‘불열부의 동쪽으로는 화살에 모두 석축을 사용하므로 옛날의 숙신씨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불열부 동쪽의 말갈과 불열부 서쪽의 말갈이 다른 계통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일단 불열부 동쪽의 말갈은 과거의 숙신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숙신계말갈’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열부 서쪽에 있는 말갈은 어떤 계통일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권오중은 속말, 백산, 안거골, 백돌을 ‘예계’로 보고, 그 외의 말갈을 ‘읍루계’로 보았다.¹⁸⁾ 그리고 일야개삼량(日野開三郎)은 말갈 7부 중 속말과 백산부를 예맥계로 보고, 기타 5부는 순통구스계로 보았다.¹⁹⁾ 이처럼 대체로 말갈 7부를 고구려와 같은 예맥족의 후손인 예맥계, 또는 통구스족인 숙신족의 후손인 숙신계(읍루계)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많다.

중국학계의 말갈에 대한 인식은 숙신-읍루-물길-말갈로 보는 ‘일원설’, 호실부·혹수부·불열부가 숙신인이며, 다른 부들은 예맥계와 융합한 것으로 보는 ‘융합설’, 예맥과 숙신 등 여러 민족이 말갈이라고 보는 ‘다원설’ 등으로 보고 있다.²⁰⁾

하지만 『수서』 「말갈전」에 기록된 말갈인들은 고구려와 부여의 영역 바깥, 즉 예맥계인의 거주 지역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말갈인들 중 일부는 예맥계인들의 거주 지역 내에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종족 갈래를 예맥계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18) 권오중, 1980, 「말갈의 종족계통에 관한 시론」, 『진단학보』 49, 21쪽.

19) 日野開三郎,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 38·39合, 63쪽.

20) 이에 대해서는 권은주(2008, 「말갈 연구와 유적 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3~58쪽) 참고.

한편, 기존의 견해와 같이 백산부 등을 백두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계의 예맥인들과 말갈인들의 거주 형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고구려를 형성한 예맥계 주민이 모두 떠나고 말갈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예맥계 주민인데 이들을 말갈이라고 낮추어 불렀는가 하는 것이다.²¹⁾ 세 번째는 예맥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에 서천왕대에 점령한 숙신인들의 일부를 부여의 남쪽에 사민 시킨 것과 같이, 다른 말갈인들도 사민시켜 예맥계인들과 말갈인들이 함께 거주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중 첫 번째의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구려가 말갈에 패해서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은 문자명왕대에 부여지역을 물길에 빼앗겨 황금을 중국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²²⁾고 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물길에게 패해서 부여지역의 전체 영토를 완전 상실하고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탁지계가 개황년간에 수에 귀부할 때에 고구려와 싸움에서 패해서 부여성의 서북쪽에서 출발했다고 하였으므로, 고구려는 부여성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항복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길림성 농안 서남쪽²³⁾의 북부여성주(北扶餘城州)나, 두만강 유역에 있었던 신성주(敦城),²⁴⁾ 이타인 묘지명에 나오는 두만강 하류의 책주(책성) 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말갈에게 패하고 이 지역을 상실했다는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고구려의 영역내에 말갈인들이 처음부터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천은 백산부 말갈을 돈화, 연길, 용정, 훈춘, 경성일대에 거주하던 말갈이었으며, 이들은 고구려가 북옥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보았다.²⁵⁾ 중국측의 기록에 백산부가 본디 고구려에 신속 혹은 부

21) 한규철, 2013, 『삼국사기』의 말갈문제, 『인문학논총』 31-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13년.

23) 노태돈, 1989,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제4집, 국사편찬위원회.

24)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용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이러한 가설도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다른 말갈족의 거주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두 번째의 가설인 예맥계 주민을 말갈이라고 낮추어 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백산말갈을 북옥저의 후손들에 대한 다른 명칭으로 보기도 한다.²⁶⁾ 그리고 속말, 백돌부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맥계로 분류하기도 한다. 즉 고구려에서 원고구려인과 고구려 주변지역에 살고 있던 예맥인을 나누어서 호칭하였으며, 원고구려인이 아닌 예맥족에 대한 비칭으로써 말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규철은 흑수말갈 즉 흑룡강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고구려 변방 주민들을 이민족시하여 낮추어 부른 고구려 주민이었으며, 당시의 백산말갈과 속말말갈 등은 고구려에 정치적으로 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족적으로도 고구려의 별종이었던 ‘고구려말갈’로 분류하였다.²⁷⁾ 이 외에도 많은 수의 국내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사에 기록된 말갈관련 기록은 고구려와 말갈의 영역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즉 고구려의 북쪽에 말갈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주민을 말갈로 지칭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²⁸⁾

또한 이타인 묘지명에도 책주를 관장하고 있던 이타인이 고구려의 12주와 말갈의 37부를 관장하고 있었다고 하여, 책성 주변을 분명히 고구려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말갈인들 중 일부는 고구려나 부여와 같은 예맥계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록에 불열부 동쪽과 서쪽의 말갈을 다른 계통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이 예맥계라는 것이 아니고 말갈 자체의 종족계

25) 김영천, 2008, 「말갈의 성장과 고구려의 말갈복속」 『고구려발해연구』 32.

26) 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 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집.

27) 한규철, 2007, 「발해인이 된 고구려 말갈」 『고구려연구』 26집.

28) 물론 동명왕 즉위년조의 말갈은 예외로 두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말갈은 예맥인들을 말갈로 불렀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중국정사에 기록된 말갈을 예맥계로 볼 수는 없다.

통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예맥계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고구려에서 말갈인들을 이주시켜 거주하였다는 점이다. 이점은 고구려가 서천왕대에 숙신부락을 점령하고 이들 중 일부를 부여의 남쪽 오천으로 사민시켰고, 350여 년 후까지도 이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고구려에 복속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점령한 다른 숙신인들을 백두산 부근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사민시켜 거주케 하였고, 이들을 백산 말갈 등으로 불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점령한 말갈인들을 흑수부 지역에 가까운 즉 다른 말갈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으로 사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부여의 남쪽이나 백두산 지역을 제외한 고구려 북쪽의 다른 지역에 말갈인들을 사민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와 속말말갈이나 백산말갈 등이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말갈 7부의 일부가 고구려에 점령된 숙신인들이 사민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때의 백산도 백두산이 아니라 대독정자산이므로 사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지 부여성의 서북에 있었던 속말말갈과 부여의 남쪽으로 사민시킨 숙신인(말갈인)이 뒤에 합쳐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고구려 내부에 중국 정사에 기록된 말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말갈의 군사력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서』 「말갈전」에 기록된 말갈의 군인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을 보면, 먼저 속말부는 수천명이 있었고, 백돌부는 7천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안거골, 불열, 호실, 흑수, 백산부의 군대는 기록하지 않고 백산부 뒤에 모두 3천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속말과 백돌부를 제외한 5부는 3000명 이하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말갈인들은 수(隋)에 대해서 계속하여 조공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수문제(고조)는 말갈인들을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니, 말갈인들도 아버지와 같이

여기라고 하였다.²⁹⁾ 이러한 것은 수와 당이 고구려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배후에서 공격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말갈이 병력은 속말갈의 탁지계가 고구려와 대립하였던 것처럼 고구려에 대항하고 있던 말갈인의 숫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말갈 7부의 군을 전부 합해도 3만여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³⁰⁾ 이는 고구려에 대항하고 있던 말갈의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는 수나 당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말갈인들을 동원하였다. 그렇다면 이때 동원한 말갈인들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다음으로 중국 정사에 나오는 말갈과 고구려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구려와 말갈의 최초의 접촉은 서기전 37년(동명왕 즉위)³¹⁾에 있었다. 이때의 말갈에 대해서는 숙신계말갈이라는 설과,³²⁾ 고구려 주변 민족에 대한 비칭이라는 설³³⁾ 등이 있다. 이때의 말갈을 숙신계말갈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숙신(말갈)이 접촉한 것은 121년(태조왕 69)이다. 태조왕은 부여에 행차하였는데, 이때 숙신의 사자가 와서 자춧빛 여우가죽옷과 흰 매, 흰말을 바쳤다.³⁴⁾ 이것은 당시 부여에 신속되어 있던 숙신(읍루)³⁵⁾이 고구려에도 복속하였던 것을 의미한다.³⁶⁾

29) 開皇初 相率遣使貢獻 高祖詔其使曰 朕聞彼土人庶多能勇捷 今來相見 實副朕懷 朕視爾等如子 爾等宜敬朕如父 對曰 臣等僻處一方 道路悠遠 聞內國有聖人 故來朝拜 既蒙勞賜 親奉聖顏 下情不勝歡喜 願得長爲奴僕也(『수서』 「말갈전」)

30) 이에 대해서 선석열은 이것은 축소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2010, 「중국정사의 말갈 7부와 삼국사기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집, 24쪽).

3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명왕 즉위년.

32) 서병국, 1974, 「말갈의 한반도 남하」 『광운대학교 논문집』 3, 광운대학교.

33) 한규철, 2013, 「『삼국사기』의 말갈문제」 『인문학논총』 31-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연구」 『부산사학』 14·15합집, 부산사학회.

34) 冬十月 王幸扶餘 祀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慎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69년).

35) 『후한서』 권 85,동이열전 제 75, 읍루.

36) 박노석, 2004, 「고구려 태조왕대 후반기의 대외관계」 『대동사학』 3집, 21쪽.

한편 태조왕은 98년(태조왕 46)에 지금의 두만강 하류에 있는 책성을 순행하였으며, 4년 뒤인 재위 50년에는 책성에 사신을 보내어 백성들을 위로하였다.³⁷⁾ 이것은 요동의 정세변화에 따른 후방의 안정책을 위한 것이었다.³⁸⁾ 또한 당시 책성의 북쪽에 있던 숙신(읍루)에 대한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왕이 부여에 갔을 때 부여에 신속하던 숙신(읍루)이 사자를 보내 선물을 바치게 된 것이다.

이어서 서천왕은 276년(서천왕 7)과 288년에도 두만강 하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신성에 순행하였다.³⁹⁾ 그리고 서천왕은 280년에 숙신의 침입이 있자 동생인 달가를 보내어 숙신의 단로성(檀盧城)을 빼앗아 추장을 죽이고, 600여 가(家)를 부여 남쪽의 오천(烏川)으로 옮기고, 부락 6~7곳을 항복시켜 복속시킨 뒤에, 달가에게 양맥과 숙신의 여러 부락을 통솔케 하였다.⁴⁰⁾

이처럼 서천왕대에는 숙신을 점령하고, 이들 중 일부를 부여의 남쪽 오천에 사민시켰으며, 점령한 숙신부락에 대해서는 부용으로 삼아 통솔하였다.⁴¹⁾ 그 뒤 광개토태왕대에도 숙신지역의 점령지역은 계속해서 통솔하고 있었다. 한편 문자명왕 13년(504)에는 부여지역에서 물길과 대립하였으며,⁴²⁾ 6세기 말 수대에는 이 지역에서 탁지계의 속말말갈 세력과 대립하였다. 문자명왕대의 물길과 탁지계의 속말말갈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같은 세력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서천왕대 부여의 남쪽 오천에 사민한 숙신(말갈)의 후손과, 부여의 서북쪽에서 거주하면서 고구려와 대립한 말갈(물길)의 관계이다. 고구려에서 280년에 부여의 남쪽으로 사민한 말갈의 후손은 고구려에 복속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여 지역에 있었던 말갈은 고구려의 영역밖에 거주하던 말갈(물길)과 고구려의

3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왕 46년, 50년.

38) 박노석, 2003, 「고구려 태조왕대 전반기의 대외관계」, 『대동사학』 2집, 30쪽.

3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서천왕 7년, 19년.

40) 박노석, 2004 「고구려 서천왕대 숙신 점령에 대한 고찰」, 『전주사학』 9.

41) 당시 말갈 문화의 형성 등에 대해서는 강인욱(2009, 「말갈문화의 형성과 2~4세기 읍루·선비·부여계문화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논문 참고.

4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명왕 13년.

영역내에 거주하던 말갈의 두 종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타인 묘지명에 의하면, 이타인은 당에 투항하기 이전에 고구려에서 책주도독겸총병마로 있으면서 고구려의 12주를 관할하고, 말갈의 37부를 통솔하였다⁴³⁾고 한다. 고구려는 후기에 책주(책성)의 도독이 두만강 하류 지역에 있던 고구려의 12개 주와,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말갈의 37개 부를 관장한 것이다.

이들 말갈 37개부는 서천왕대에 점령한 말갈 6~7개부와, 이후에 고구려에서 점령한 다른 말갈이었을 것이다. 한편 말갈 7부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던 말갈이 호실부이고, 책주도 두만강 하류에 있었으므로 책주에서 관할한 말갈은 북쪽에 있던 호실부를 포함한 백산부⁴⁴⁾ 등의 세력이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말갈을 지배하였던 것은 이들 뿐만은 아니었다.

말갈은 모두 속신의 땅이다. (중략)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로는 돌궐에 접하며 남으로는 고려[고구려]와 경계를 삼고 북으로는 실위에 이어진다. 그 나라는 무릇 수십부로 이루어졌고, 각기 추수가 있으며 혹은 고려에 부용하고, 혹은 돌궐에 신속한다. (중략) 그 백산부는 본디 고려에 부용되어 있었는데, 평양을 거둔(점령한) 뒤에 부의 무리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왔다. 골돌[백돌부], 안거골, 호실 등 부도 역시 고려가 점령된 뒤에 분산되어 미약해져 뒤에 들리는 바가 없다.⁴⁵⁾

백산[부]는 본래 고려의 신속되었는데, 왕사가 평양을 취한 뒤에 그 무리가 많이 당으로 들어왔다. 골돌[백돌부], 안거골 등 부는 모두 분산되어 점차 미약해져 들리는 바가 없다. 남겨진 사람들은 흩어져 달이나 말해에 들

43) 고구려연구재단, 2005, 『중국소제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288~291쪽; 윤용구, 2003, 「중국출토의 한국고대 유민자료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307~310쪽; 拜根興, 2010, 「당 이타인 묘지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4.

44) 김중복은 말갈 37부를 백산말갈로 보았다.(『2005, 고구려 멸망전후의 말갈 동향』 『북방사논총』 5, 178쪽).

45) 靺鞨 蓋肅慎之地 (중략) 東至於海 西接突厥 南界高麗 北室韋 其國凡爲數十部 各有酋帥 或附於高麗 或臣於突厥 (중략) 其白山部 素附於高麗 因收平壤之後 部衆多入中國 汨咄 安居骨 號室等部 亦因高麗破後奔散微弱 後無聞焉(『구당서』 「말갈전」)

어갔다. 오직 흑수부가 강하여 16락으로 나뉘었고, 남북[흑수]로 칭해지고, [흑수말갈이] 거주하는 곳이 최고 북방이다.⁴⁶⁾

위의 『구당서』나 『신당서』의 기록과 같이 백산부는 본래 고구려에 신속 혹은 부용되었던 세력으로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당에 많이 들어왔으며, 백돌과 안거골, 호실, 속말, 불열부 등은 분산되어 점차 미약해져 들리는 바 없게 되었거나, 발해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는 고구려가 망한 뒤 속말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백산부만이 고구려에 신속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구려의 멸망 후 흑수부를 제외한 다른 부들이 분산되어 흩어지고, 발해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점은 이들도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던 세력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흑수부만은 고구려에서도 점령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비록 속말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백산부보다 당에 가까이 있던 속말부의 많은 세력도 당에 끌려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흑수부를 제외하고 다른 6개의 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책주에서 북쪽에 있던 말갈의 37부를 관할한 것과 같이 비록 현재까지의 기록에서는 알 수 없으나 고구려에서는 북쪽에 있던 다른 부여주 등 주요 거점에서도 북방에 있던 말갈을 관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고구려에서 동원한 말갈병의 주력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수서』에 기록된 말갈병은 고구려에 복속되지 않고 저항하던 말갈의 병력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북방에 있던 말갈(숙신)을 복속시키고, 복속한 말갈의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사민시켜 가면서 이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전체 말갈지역을 복속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물갈(말갈)의 침입으로 북방 부여 지역을 상실하기도 하였으나, 고구려 멸망기에 지금의 농안 서남쪽에 있던 북부여성주는 당의 공격에 함락당하지 않았다⁴⁷⁾고 하는 것으로 보

46) 白山本臣高麗 王師取平壤 其衆多入唐 汨咄 安居骨等皆奔散 浸微無聞焉 遣人进入渤海 唯黑水完強 分十六落 以南北稱 蓋其居最北方者也(『신당서』 「흑수말갈전」)

47) 『삼국사기』 권 제37, 잡지 제6, 지리 4. 高句麗·百濟 三國有名未詳地分 鴨綠水以北 未降

아, 곧바로 이 지역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후 6세기 후반까지도 서북쪽에 있던 속말말갈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부여성의 서북쪽에 있던 속말말갈 궤계부의 탁지계와 여러 차례 싸워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탁지계가 수에 귀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서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고구려는 서쪽의 돌궐이나 수, 당의 세력, 남쪽의 신라 등과 많은 대립을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수나 당에서도 고구려와 전쟁을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말갈세력을 이용하여 고구려의 힘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부해 오는 탁지계의 세력이나 조공을 바치는 말갈에 많은 환대를 해 주었던 것이다.

고구려에서도 많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병력과 함께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북속시키고 있던 말갈에서 이러한 물자의 조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이에 반발하는 말갈인들과의 대립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원고구려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내부에 거주하는 이민족, 북속시키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갈인들은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으로, 이들은 고구려나 부여 등을 형성했던 예맥계 민족의 북쪽에 거주하는 숙신계 주민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이들 숙신족은 태조왕대부터 본격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서천왕대에는 이들을 북속시켜나가게 되었다.

6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고구려에는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말갈인들을 북속시키고 있으면서 이들을 고구려의 군사력화 하였다. 하지만 흑수부를 비롯한 일부 말갈인들은 고구려에 북속되지 않은 상태로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말갈은 고구려의 북방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숙신, 물길, 말갈 등으로 기록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숙신, 읍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로 불리는 민족이다. 말갈이 중국 측 기록에서 가장 먼저 열전에 기록된 것은 『수서』 「말갈전」이다.

『수서』 「말갈전」에는 말갈은 속말부, 백산부 등 7부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중 속말부가 고구려와 인접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 말갈 7부의 위치에 대해서 기존에는 백산부의 백산을 백두산으로 보아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북쪽 지역에서 찾았으나, 이곳은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또한 고구려와 속말말갈의 경계선인 도태산(태백산)을 대독정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속말부의 탁지계가 부여성의 서북에서 수에 귀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속말부는 지금의 농안 서북쪽에 있었다. 그리고 백산부의 백산이 태백산 즉 도태산이므로 백산부는 목단강 상류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5부의 상대적 위치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말갈인들은 고구려의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으로, 이들은 고구려나 부여 등을 형성했던 예맥계 민족의 북쪽에 거주하는 숙신계 주민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이들 숙신족은 태조왕대부터 본격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서천왕대에는 이들 중 일부를 복속시키고, 이중 일부를 부여의 남쪽 오천에 사민시켰다.

한편, 부여성의 서북쪽에는 속말말갈이 있었고, 부여의 남쪽에는 서천왕대 고구려에서 사민시킨 말갈인의 후손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었는가 여부는 알 수 없다.

6세기 말에 이르러서도 고구려에는 북쪽에 거주하고 있던 말갈인들을 복속시키고 있으면서 이들을 고구려의 군사력화 하였다. 하지만 흑수부를 비롯한 일부 말갈인들은 고구려에 복속되지 않은 상태로 고구려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멸망 후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과 속말부와 백산부의 말갈인들이 당에 끌려갔다.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고구려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들 중 일부는 북방의 말갈지역으로 이동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태평환우기』

고구려연구재단, 2005, 『중국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고구려연구재단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강인옥, 2009, 「말갈문화의 형성과 2~4세기 읍루·선비·부여계문화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33집

권오중, 1980, 「말갈의 종족계통에 관한 시론」 『진단학보』 49

권은주, 2008, 「말갈 연구와 유적 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김락기, 2009, 「5~6세기 물길의 중심지와 도태산」 『한국고대사연구』 53

_____, 2010, 「6~7세기 말갈 제부의 내부구성과 거주지」 『고구려발해연구』 36집

김미경, 2007, 『고구려 전기의 대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병남, 2000, 「『삼국사기』 초기 기록 말갈에 대한 재검토」 『전북사학』 23

김영천, 2008, 「말갈의 성장과 고구려의 말갈 복속」 『고구려발해연구』 32

김종복, 2005, 「고구려 멸망전후의 말갈 동향」 『북방사 논총』 5

김현숙, 1993, 「고구려의 말갈지배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

노태돈, 1989, 「부여국의 경역과 그 변천」 『국사관논총』 4, 국사편찬위원회

박노석, 2003, 「고구려 태조왕대 전반기의 대외관계」 『대동사학』 2집

_____, 2003, 『고구려 초기의 영토변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 2004, 「고구려 서천왕대 숙신 점령에 대한 고찰」 『진주사학』 9

_____, 2004, 「고구려 태조왕대 후반기의 대외관계」 『대동사학』 3집

拜根興, 2010, 「당 이타인 묘지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4

서병국, 1974, 「말갈의 한반도 남하」 『광운대학교 논문집』 3, 광운대학교

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 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집

윤용구, 2003, 「중국출토의 한국고대 유민자료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한규철, 1988, 「고구려시대의 말갈연구」 『부산사학』 14·15합집, 부산사학회

한규철, 2007, 「발해인이 된 고구려 말갈」 『고구려연구』 26집

_____, 2013, 「『삼국사기』의 말갈문제」 『인문학논총』 31-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
구소

日野開三郎, 1948, 「靺鞨七部の前身とその屬種」 『史淵』 38・39合

■ Abstract ■

The Relation between Gogureo and Malgal from Late 6C to
Early 7C
- Focused on “Malgaljeon” in *Suisbu* -

Park, Roh-Seog

It was written in “Malgaljeon” in *Sbisbu* including *Buksa*, *Jiu Tang shu*, and *Xin Tangshu* that Malgal was classified into 7 tribes: Sokmalbu, Baeksanbu, and so on. Until now, historians have considered Baeksan, one of the residence of Malgal, as Baekdusan, and explained locations of other tribes through it as the standard. If so, it needs to reconsider this, because this means that Malgal lived in the territory of Gogureo.

Dotaesan(Taebaeksan), the border between Gogureo and Sokmalbu, and Baeksan were the Daedokjungjasan. And Sokmalbu was located in the northwest of contemporary Nongan. So we should reconsider locations of others on the basis of this.

Malgal written in Chinese Authentic Historic Records consisted of the Sukshin lineage that resided in the north of Gogureo. In the King Taejo of Gogureo, Gogureo and Malgal came into first contact, and the King Seochun conquered some parts of them. In late 6C Gogureo kept conquering them and used some of them as soldiers.

www.kci.go.kr

Key words : Malgal, Malgal 7Bu, Sukshin, Sokmalbu, Baeksanbu, Dotaesan, 『Sui shu(隋書)』